

2021년 6월 1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간척지농업과 과 장 김춘기(044-201-1871), 서기관 신동원(1881)/ 제공일: 6월 10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집중호우 대비 수리시설 수해예방대책 중점 추진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수리시설 사전점검 등 호우 대비 예방대책 추진에 총력

- 저수지 시설상태 점검, 수위 관리 및 상시 감시인력 배치 강화
- 배수장 정상 가동상태, 가동인력 배치상황 점검
- 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를 통해 배수 능력 최대 확보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저수지,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.

- 5월 말까지 전국 17천여개의 저수지와 1,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고,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을 실시한다.

- 금년 1/4분기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6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응급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,
 - 특히,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,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.

-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
-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.
 - 특히, 대규모 배수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역,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,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과 소규모 배수로를 중점적으로 준설과 수초제거를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.

-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전 조치를 완료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